人文論叢
80권 2호
2023년 5월

일반 논문

인문논총 80권 2호(2023. 5. 31), pp. 189~221
[DOI] https://doi.org/10.17326/jhsnu.80.2.202305.189

‘향당(鄕黨)의 공공화’, 상주 사족의 존애원(存愛院) 설립과 유의(儒醫) 성람(成灠)

김호*

초록 본고에서 필자는 16~17세기 조선에서 나타난 ‘향당의 공공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주도했던 사족들의 활동을 상주의 존애원을 통해 살펴보려 했다. 기왕의 연구들은 존애원의 정체성을 ‘사설 혹은 사립’ 의국(醫局)으로 규정해 왔다. 때문에 존애원을 ‘공국’으로 표현했던 읍지의 편찬자들이나 존애원 운용에 참여했던 상주 사족들의 ‘공공의 실천’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말았다. 16세기 이래 지속되었던 성리학자들의 도학(道學) 실천은 수신제가 이후 치국의 실천이, 중앙의 관료가 아닌 ‘향촌 내 공공의 실천’을 도모함으로써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만들었다. 전직 관료는 물론 다수의 초시(初試) 합격자들이 향촌에 남아 공공의 활동에 종사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유향소 참여나 서원 및 향교에서의 활동은 ‘사문(斯文) 의식의 확장과 지식인의 정체성’에 대한 느리지만 뚜렷한 변화를 동반했다. 이는 향촌을 사적 이익의 갈등장이 아닌 공공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의 결과였다. 필자는 향촌 사족의 존재와 활동을 국가나 관에 대립시키거나 혹은 서원과 향약 등의 교육에 국한시켰던 기왕의 연구동향을 비판하고, 국가와 사족의 관계를 관·민의 협응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의국을 중심으로 한 사족의 활동을 발굴함으로써, 16~17세기 조선의 ‘공공(social)의 구축’이라는 역사적 현상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주제어 존애원, 의국(醫局), 주세붕, 정경세, 이준, 성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1. 머리말

우리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한 바 있다. 모두가 예방 주사를 맞는가 하면 감염을 걱정하여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자, 사회적 동물이라는 본연의 감각마저 둔해져 버렸다. 반면에 공공 의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상호 호혜의 정신은 점점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재난 시기는 물론 일상의 환난(患難)에 대비하여 상휼(相恤)을 추구했던 상주 의국 존애원의 건립 과정과 향촌 사족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16세기 이래 지속되었던 '향당(鄕黨)의 공공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자 했다.

조선의 향촌 사족들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료 체계의 부실과 의생 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의료 공백 및 약재 구득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이는 매우 중요한 역사 탐구의 주제이지만, 조선의 지방 의료 제도 및 실상에 관한 한국사학계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일찍이 향촌사회사의 관점에서 강릉 약국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제출되었지만 이어지는 후속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 존애원의 경우도 향토사 차원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을 뿐, 조선의 지방 의국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그 역사성을 평가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다.[2]

근래 필자는 영주 의국 제민루를 비롯하여, 지방 의국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족들의 역할 그리고 지방관들의 의지 등을 중심으로 지방 의국 혹은 약국의 실태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계(契)의 형식을 빌린 존본취

---

1 이규대(1988), 「조선후기 약국계의 일고찰」, 『사학논총』, 우인김용덕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2 한기문(2000),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 설치의 배경과 의의」, 『상주문화연구』 10; 권태을(2000), 「상주 존애원 관련 시 소고」, 『상주문화연구』 10; 신동원(2006),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역사비평』 75.

리의 양상을 탐구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 의국의 설립과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관·민의 협응 양상과 '공공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3]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필자는 조선의 공공을 단순히 관이나 국가 혹은 대중(public)이 아닌 '사회'(social)의 발견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4]

존애원과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상세하게 논술하겠지만, 우선 존애원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이 '조선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상주대학교의 주도로 존애원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시작된 이래 '사설' 혹은 '사립'이라는 사적 의료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 온 것이다.[5] 최근에 임란 이후 향촌 복구 과정에서 보여 준 지방 사족의 애민 정신을 존애원의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오지만,[6] 여전히 '공국'(公局)으로서의 존애원의 역사적 의의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7]

---

3 김호(2018), 「16~17세기 조선의 지방 의국 운영: 경북 영주의 제민루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7; 김호(2019), 「16세기 지방의 의서 편찬과 환난상휼의 실천지」, 『조선시대사학보』 89; 김호(2022),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慈善 醫局 구상: 홍길주의 用壽院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88; 김호(2023), 「환난상휼의 실천, 16~17세기 향촌 사족들의 지방 의국 운용」, 『역사와현실』 127.

4 필자는 송대 향촌 사족들의 공공 실천[斯文 의식의 발로]이야말로 '성리학의 핵심적인 사회자본'이라는 피터 볼의 논의 그리고 현대 중국의 농촌 붕괴에 맞서 '방법으로서의 향신(鄕紳)'을 강조한 샹바오의 주장을 참조하여, 16~17세기 조선의 향촌 내 사족들의 공공 실천을 '향당의 공공화'로 설명해 보았다[피터 볼(2010),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샹바오(2022), 김유익 역, 『주변의 상실: 방법으로서의 자기』, 글항아리].

5 한기문(2000); 권태을(2000). 이후 2005년 권태을은 『존애원』 관련 단행본을 출간했다[권태을(2005), 『(조선최초사설의료원) 존애원』, 문창사].

6 우인수(2011),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 기능」, 『대구사학』 104; 김형수(2016), 「임란직후 상주 지역질서의 재편과 존애원」, 『국학연구』 30; 최은주(2016), 「월간 이전·창석 이준 형제의 전쟁체험과 애민정신, 그리고 존애원」, 『국학연구』 30; 김도완(2018), 「상주 洛社契의 존애원 설립과 운영」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우인수(2021), 「존애원의 설립과 변화」, 『제9회 상주박물관학술대회자료집』; 김성수(2021), 「상주 존애원과 지방 의원의 운영」, 『제9회 상주박물관학술대회자료집』.

이는 조선의 공공을 사(private)의 반대로만 이해한 결과다. 공은 사(private)의 대척이라기보다 공적(public)인 동시에 사회적(social)인, 즉 상생의 관계이자 토대를 의미했다. 상주의 존애원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지방 의국을 국립이냐 사립이냐의 문제로 환원한다면 의국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의미 부여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공의 의미가 가려지게 된다. 나아가 지방 의국의 실천을 단지 향촌 사족의 지역에 대한 장악 의지로만 파악한다면, 사족들의 사회적 실천을 지나치게 협애하게 평가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바탕에는 그동안 지방사 연구를 지나치게 '중앙 대 지방'이나 '국가 대 백성[士民]'이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보았던 학계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8] 가령, 조선시대의 서원을 국립 혹은 사립으로 구분하여, 백운동서원을 사설로 규정하는 것이 그러하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의 건립은 주세붕이라는 국가 관료의 주도하에 지방 사족들의 협조로 이루어낸 관·민의 공공사업이었다.[9] 이를 오직 지역 내 사족들이 주도한 사립학교였다고 주장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어긋날뿐더러 16세기 국가의 교화 정책과 이에 호응한 지방 사족들의 '향당의 공공화'를 둘러싼 역사적 실천을 오독하게 된다.

조선시대 내내 상당한 국가의 재원을 서원이나 향교에 지원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하다면 서원을 사설이라든가 사립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살펴볼 존애원 의국 역시 마찬가지다. '사설'이라면 설립부터 이후 폐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지원 없이 사족들의 모금과 이식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존애원을 포함하여 공공을 지향한 조선의 의국은 계원(사족)들의 재원으로만 유지되지 않았다. 조선 정부는 서원이나 의국의 '공공

8 최근 구미학계의 중국 향촌사회사 연구는 관과 지방 사족을 대립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서로 간의 협상과 협응을 통해 '공공성의 확산'을 도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석희(2015), 「최근 30년 북미 중국학계의 향촌사회사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97; Sukhee Lee (2014), *Negotiated Power: The State, Elites, and Local Governance in Twelfth to Fourteenth-Century China,*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9 허권수(2022), 「신재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건립의 과정과 의의」, 『연민학지』 38.

성'을 인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했고, 그러한 공공의 실천에 호응한 사족들 역시 자신을 사인(私人)이라기보다 공공의 실천자, 즉 공인으로 인식했다.

16~17세기 조선은 '사회'[鄕黨]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이에 호응한 향촌 사족들의 노력이 합쳐지면서, 향당의 공공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고 있었다.[10] 한마디로 사회(social)를 구축하던 시기였다.[11]

2. 의국(醫局), 공공의 장

2.1. 반계 유형원의 의국 개선안

상주의 존애원을 논하기 앞서, 17세기 후반 지방 의국에 관한 중요한 개선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잘 알려진 대로 유형원은 17세기 조선 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했고, 이는 그의 방대한 저술인 『수록』(隧錄)에 담겨 있다. 영조대의 관료였던 덕촌 양득중(梁得中, 1665~1742)은 1741년(영조 17) 사직소를 올리면서, 호남 유생 유형원이 쓴 『수록』 13권을 토대로 국가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득중 자신이 살펴보기에 '고금의 시세를 참작하여 십분 타당한바'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강조한 것이다.[12] 유형원의 논의 가운데는 지방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국 개선안'도 실려 있었다.

① 각 읍에 모두 의국을 설치하는데, 각 지역의 인사[士族]들에게 권유하여

---

10 '사회적'인 것과 관련하여, 사회는 개인(주의적인)의 측면과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집단적 측면이 공존하는 '상생의 관계'라는 주장에 주목한다[권헌익(2016),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이란?」,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푸른길, pp. 134-135].

11 조선의 공공성에 관한 앞으로의 논의는 'public'의 의미와 더불어 'social'의 측면을 깊이 논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德村集』 권2 「又辭疏(辛酉)」.

의국을 설립한다. 운영은 지금의 '약계'(藥契)처럼 한다. 읍내의 한 구역을 설정하여 의국을 건립하고, 의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금과 군역을 면제한다[해당 구역 내 의국을 설립한 후 나머지 지역의 호역(戶役)이나 세금은 모두 의국에서 주관한다].

② 현에는 의국을 한 군데 세우고, 군에는 두 군데, 부에는 세 군데, 도호부와 대부(大府)에는 네 군데를 설치한다.

③ 만일 의국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없을 경우 해당 지방관에게 사정을 보고하면, 관에서는 미곡을 빌려주고 10년 안에 갚도록 한다.

④ 열읍(列邑)으로 하여금 모두 의국을 두고 토지를 제공하고 장정을 주어 흥하도록 하면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의국은 의학을 일으켜 만민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려는 뜻이므로 관아의 공물(貢物) 같은 일로 조금이라도 침학해서는 안 된다. 수령은 마땅히 이 뜻을 알아야 한다.[13]

반계 유형원은 원래 의학은 고을[邑]마다 있어야 하므로 국가의 법제에 군현에 반드시 의생을 두도록 했는데, (지방관들이) 이들을 천민처럼 각종 역에 충정할뿐더러, 약재 진공을 의례히 책임지우고, 관아에서 부리기를 관노처럼 한다고 비판했다. 의생들은 날마다 매를 맞을까 근심할 뿐이니 글을 읽거나 의술을 공부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14] 유형원은 중국에서도 주현에 의국을 두었지만 의술을 아는 사람을 얻지 못했고, 단지 약재 진상을 검사하는 심약(審藥)의 역할에 불과할 정도라고 보았다. 조선의 경우도 의국

13 『磻溪隨錄』 補遺 권1 「郡縣制」, "① 各邑 皆令置醫局 勸諭各鄕人士 建設醫局 如今藥契之爲 而許給立局地一頃 蠲免稅兵[其頃內造局外餘地 戶役或稅 皆自本局主之] ② 縣立局一所 郡二所 府三所 都護府大府四所 ③ 若欲設局而無財本者 許狀告本官 量貸常平米穀 限十年內 償其原數 ④ 又令列邑 皆置醫局 復地給丁以勸興之 庶乎其實有益也 然此是興起醫學 惠濟萬民之意 不可以公貢等事一毫侵 及守令當知此意."

14 『磻溪隨錄』 권10 敎選之制(下), 「諸學選制附」, "按醫學有邑之不可無 國制郡縣亦有醫生而例以賤隷輩充定 凡進貢藥材之類 例責於醫生 官中使喚 一同官奴 日憂笞臀之不暇 況望其治文業醫乎."

을 건립했지만, 의학에 밝은 인재[의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15]

선초에 조선 정부는 각 도에 두세 군데를 정해 의국을 세우고 심약을 파견하여 진공 약재를 검사하고, 의생을 양성하여 지방 의료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반계의 비판대로 의생을 관노처럼 부리고 약재 진상의 부담을 지우고 군역에 동원하자, 이들이 미처 의술을 배워 지방민들을 위한 의료 행위를 베풀 정도로 성장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일부 의학에 밝은 사족[儒醫]을 중심으로 '약계'(藥契)를 결성하여 약재를 구득하고 계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조 조직을 갖추어, 열악한 지방 의료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반계의 구상은, 군현 그리고 읍 단위에 의국을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의생을 양성하여 담당토록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족들의 '약계 운영 방식'을 빌어 유지해 나가자는 제언이었다. 사족들이 자신들만의 '약계'가 아닌 향촌 공동체를 위한 의국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것이다. 계[藥契]는 계원들이 기금을 갹출하여 이익을 남기고 이를 통해 상호부조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부조 모임이었다. 이러한 계의 운용을 모방하여, 사족들이 자율적으로 약재 구입 및 제약(製藥) 그리고 판매 등으로 이익을 남겨 의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한 것이다. 의국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족들의 ① 공적인 자세, ② 유의의 활동, ③ 지속가능한 경영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특히 반계 유형원은 계 운영방식을 의국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계의 목적은 계원들의 사적 부조에 있었지만, 사실 상장계(喪葬契) 등과 관련되면서 풍속의 순화에도 일조하고 있었다. 계의 취지를 주희 향약의 정신과 결합시키면, 곧바로 '환난상휼을 위한 토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17세기 보성의 사족 박사형(朴士亨, 1635~1706)은 '계'를 길흉의 애경사에 부조하는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당시의 풍속을 비판하고, 오랜 전통의 계모임을

15 『磻溪隨錄』 권10 敎選之制(下) 「諸學選制附」, "中國州縣各置醫師之官 然想其事勢 未必眞得知醫之人 不過如今各道審藥而已也 蓋量今事體 郡邑不必別立醫學 只如右立制 以待其人 無其人則闕之爲可 如此則人知醫術之可學 疾病者得有所賴 而其中或有眞醫之出矣."

향촌의 인후한 풍속과 예양(禮讓)의 기풍을 만드는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자 향약의 약(約)이나 전통적인 계(契)는 서로 유래는 다르지만 본의가 동일하다는 주장이었다. 재난 시기를 포함하여 일상 속의 환난과 이에 대한 상휼에 대비하여, 계와 같은 사적 모임이 공공의 실천으로 확대될 때, 〈사적인 계(契)는 비로소 공적인 약(約)의 실천〉으로 전환되고, 향촌 안정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16]

가령 선초에 설립된 영주의 제민루가 존·폐를 거듭했던 배경에는 의국 운영에 나선 '영주 재지 사족의 책임감'과 '유의 이석간과 같은 명의(名醫)의 활동',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17] 최초의 설립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해도, 이후의 지속적인 존립은 의국의 약재 판매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 창출이 중요했다. 다음에 살펴볼 존애원은 정경세와 이전(李瑮)·이준(李俊)과 같은 상주 낙사계원들의 공공을 위한 실천 의지, 그리고 당파를 넘어선 유의 성람의 참여로 가능했다. 유형원의 바라던 바 이상적인 의국의 모델이었다.

2.2. '공국'(公局) 존애원의 건립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정부는 선초부터 한 도에 2~3개의 의국을 운영하면서 심약을 내려보내 지방의 약재 공물을 감독하는 한편 지방 사족 자제들 가운데서 의생을 양성하여 지방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방관의 주도로 설립된 서원의 운영을 재지 사족들이 도맡은 것처럼, 의국의 경우도 정부의 공공 의료 정책에 호응한 향촌 사족들의 협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설사 관의 주도로 서원과 의국이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그 운영상의 자율성은 지방 사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1602년 존애원의 설립

16 『淸狂子集』 권2 「洞約契序」.

17 김호(2018); 김호(2023) 참조.

과 운영을 상주 사족들이 주도했다고 해서 이를 공국이 아닌 사국(私局)으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 조선 초 이래 상주는 경상도의 주요한 고을이었고 당연히 정부에서는 의국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다 임란 이후 향촌의 자발적 운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주의 사족들이 존애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18]

존애원 설립에 동참했던 창석 이준(1560~1635)은 『상산지』(1617)를 편찬하면서 존애원을 '공국'으로 표기했다. 상주 사족들이 설립한 존애원이지만 '공공성'을 지향하는 기관으로 이해한 것이다.[19] 애초에, 존애원이 국립인지 사립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보다는 사족들이 존애원을 공국으로 인식하고 이곳을 통해 공공 의료를 실천하려 했는지 그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국으로의 존애원의 정체성은 18세기 후반의 『상산지』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17세기 초반 상주 사족들의 설립으로 이루어진 존애원은 중간에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관이 개입하여 세금을 면제하거나 토지를 지급하여 의국을 운영토록 했다. 당시 존애원을 '관국'(官局)이라고 표현했지만, 상주의 8개 사족들은 존애원의 직임을 맡아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존애원은 여전히 공국이었다.[20]

조금 길지만 「존애원기」를 작성했던 이준의 주장을 통해 의국의 설립

---

18 존애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던 낙사계와 상주 사족에 대해서는 권태을(2005), pp. 117~187 참조. 류성룡의 문인들, 특히 사회적 실천을 중시한 이들이 존애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김명자(2018), 「임진왜란 이후 류성룡과 그의 문인들의 의료 활동과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70].

19 『商山誌』(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古 4790-31)는 간단하게 '存愛院有記'라고만 적혀 있다. 『상산지』는 1617년 상주 출신의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이 찬술한 것을 1749년 청대(淸臺) 권상일(權想一, 1679~1759)이 증보했다. 이후 1832년 모구(慕搆) 조술립(趙述立, 1791~1870) 등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증보되었으며, 20세기에 활판으로 인쇄되어 전한다. 일반적으로 이준의 편찬본을 '창석본', 권상일의 증보판을 '청대본'으로 일컫는다.

20 『상산지』(청대본) 「公署」 "醫局-在南門外 本趙成姜洪朴金李全八家 設稧創建 中間官家給復戶與藥種爲官局 而八家子弟爲任主管 今廢."

배경과 운영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우리 향당에 달관한 분[정경세]이 있으니 자비심은 보살과 같고, 포부는 경국제세(經國濟世)의 큰 뜻이 있었다. 만력 기해년(1599) 가을에 관에서 사임하고 향리에 있었다. 하루는 친구 성람과 의논하기를, "우리는 혈육을 지닌 몸으로 한서의 침해를 받아 400가지나 되는 병이 침공해 오는데도 약은 한두 가지도 갖추지 못해 왕왕 비명에 죽으니, 바위 담장 아래서 질곡에 죽어 가는 것과 같지 않은가? 지금 공은 시서와 학문은 물론 의학에 달통했다. 이제 동지들과 대략 약재를 모아 급할 때 쓰고자 하니 진료하고 투약하는 일은 공의 일이다."라고 하니, 성람이 마땅하다고 동의했고, 여러 사우 또한 흔연히 참여를 원하여 협력했다. 향약재는 역(役)없이 노는 자들[游手]을 모아 채취하고 당재(唐材)는 쌀과 베를 내어 무역하여 재료가 이미 구비되니 이를 출납하는 장소가 없을 수 없어 창고를 지어 저장하고 손님이 날로 모여 숙박할 곳이 없을 수 없어 당우를 세워서 접대했다. 약을 팔아 본전으로 삼고 나머지는 늘려 모든 비용과 재료 구입에 충당하면서 누구든지 약을 구하는 자에게 짐짓 얻게 해 주니 효과가 순식간에 파급되었다. 정선생(程先生)의 '존심애물'(存心愛物: 본심을 지켜 기르고 남을 사랑함)이란 말을 취하여 '존애원'이라 이름 지었다.

② 남과 내가 가깝고 멀고는 비록 다르나, 한 가지로 천지간에 태어나 한 기운 고르게 받은 즉, 차마 마음속에 가득 차지 못하는 마음을 미루어 동포를 구활함이 어찌 사람의 본분을 다함이 아니랴. 한 사람의 선비가 그 자리는 비록 미미하고 비록 그 베풂이 넓지는 않다 하더라도, 실로 사랑하여 소중히 아끼는 마음[愛物]을 지닌즉 반드시 가난과 어려움을 구제[濟物]하는 일이 있을지니, 이것이 군자가 마음 지닐 바요, 편액에 이를 취한 까닭이다. 애(愛)란 인(仁)의 베풂으로 어버이를 친히 공경하

는 마음으로 백성을 어진 마음으로 사랑[仁愛]하고, 백성을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다 이 사랑의 옮김이 아님이 없으니, 사랑의 쓰임이 어찌 크지 않은가?

③ 옛날의 군자는 집을 나오지 않고도 나라에 교화를 이루었다는 말이 있으니, 그 도리는 이 때문이었다. 유마힐은 지위가 있는 자가 아닌데도 백성의 병을 자신의 병을 보듯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유자들처럼 나와 남을 한가지로 여기는 자임에랴. 지금 우리 몇 사람은 모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자로서 그 국면과 규모에 근거하여 뒷날 시설을 갖추어 하루 아침 일이 있을 때 진실로 모든 일에 조치할 것이니, 존심애물의 효과가 있어 어찌 이 한 원(院)에 그치겠는가.[21]

기문을 지을 당시 이준은 단양군수로 재직 중이라 의국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상주의 낙사계 계원들이 정경세의 주도하에 의국을 세운 사실을 칭송했다. 첫 문장(①)에서, 그는 존심애물의 정신으로 존애원 의국을 건립하고 운영한 상주 사족들의 공공 실천을 강조했다. 1598년(선조 31) 정인홍의 정치공세로 상주에 내려와 있던 정경세는 김각, 성람, 이전, 이준, 강응철, 김광두 등 향촌 사족들과 함께 의국 설립을 주도했다.[22] 1599년 의국 설립의 의지를 모아 약재 창고를 만들고 당우를 확장하는 등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602년 비로소 존애원이 낙성된 것

21 『蒼石集』 권13 「存愛院記」.

22 정경세의 행장을 지은 이준은 1602년(선조 35) 봄 좌승지의 부름을 받았으나 정경세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존애원 의국을 창건하여 의료 혜택의 확산에 노력했다고 기록했다(『蒼石集』 권18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二師行正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鄭公行狀」, "壬寅春 拜左承旨禮曹參議 皆不赴 時公家食將二稔矣 乃與同志相議曰 維摩詰非有位者也 而能視人之病猶己之病 吾徒皆有志澤物 獨不念康濟同胞耶 遂各出錢設醫局 取其息貿材料 隨病投藥 取先儒存心愛物語 名其局曰存愛院 其陰德之及物者廣矣.").

이다.[23]

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존애원의 운영은 계원들의 상호부조를 활용했다. 유형원이 강조했듯이, 계의 이식 행위를 통해 의국을 운영했던 것이다. 약재를 팔아 남은 이익으로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계원들과 의료 혜택을 공유했다. 동시에 "누구든지 약을 구하는 자에게 약재를 공급함"으로써 사계(私契)를 넘어 공익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했다. 존애의 취지대로 "남과 내가 가깝고 멀고는 다르지만 이들을 구활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었다(②). 향촌 사족의 지위가 재경 관료들에 비해 보잘것없다 해도, 이른바 군자의 측은지심을 지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공공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었다. 유마힐의 덕을 펴는 일이야말로 관직에 나가지 않은 재지 사족들의 존재 의의라 할 만했다. 요컨대, 존애원은 조선 정부가 그토록 확산하려 했던 환난상휼의 토대[사회적 자본]였다(③).[24]

3. '향당의 공공화'와 관·민의 협응

3.1. 주세붕의 향안 서문(1551)

향촌 사족들의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상주 사족의 『청금록』 작성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향안(鄕案)은 지방 사족들의 결속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역할을

---

23 존애원의 건립연도를 1607년으로 주장하기도 한다(『一默齋集』 권2 「年譜」, "丁未 萬曆三十五年 先生四十六歲 與社中諸賢 議建存愛堂 先生與宋愚谷尹希菴鄭愚伏李月澗蒼石金愚淵諸公 合議以建而存愛之號 盖取程夫子存心愛物之義也.") 상주 사족 김광두는 유성룡의 문인으로 임란 당시 정경세·이전·이준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606년(선조 39)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24 임란 전후 상주 사족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정진영(1998), 「제3장 임란 전후 상주지방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둘러싼 '공동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현존하는 『상산향언록』(商山鄕彦錄)에는 흥미로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1551년의 주세붕(1495~1554)의 서문, 그리고 이후 1617년 중수 과정에서 이준(1560~1635)과 정경세(1563~1633)가 새로 쓴 서문이 그것이다. 이들 향안의 서문을 통해 존애원 건립을 전후한 시기에 상주 사족들의 정체성과 공공에 대한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중엽 경재소를 중심으로 재경 관료들의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자부심은 출신 지역의 향안 작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지방 지식인[향촌 사족]들의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1551년, 56세의 주세붕은 「상주유향좌목서」(尙州留鄕座目序), 즉 향안의 서문을 집필했다. 이에 앞서 10년 전인 1541년(중종 36), 풍기 군수에 부임했던 그는 백운동서원(후일 소수서원으로 사액된)의 건립을 도모한 바 있었다.[25] 이미 향교가 있으므로 굳이 서원을 건립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주세붕은 주자 성리학을 조선에 뿌리내리기 위해 굳이 서원을 세운 것이다.[26] 사실 주세붕은 풍기에 부임하자마자 우선 향교의 이건을 주도했다. 풍기 사족 황빈(黃彬)의 사비를 지원받고 경상도관찰사 이청(李淸)의 허락하에 향교를 재건한 것이다.[27] 풍기군수로서의 교화 사업은 주세붕이 부임 초 부로들과 소민들에게 강조했던 '인륜의 부식(扶植)'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니,[28] 한마디로 성리학을 통한 '향당[사회]의 변신'이었다.[29]

---

25 소수서원의 창립과정에 대해서는 정순우(2013), 「소수서원의 창설 과정과 그 성격」,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6 『武陵雜稿』 권5 「答黃學正仲擧」, "此吾之於竹溪 所以立廟院置田書 雖被世俗笑侮 而不暇顧也."

27 『武陵雜稿』 권7 「豐基移建學校記」.

28 『武陵雜稿』 권6 「告豐基父老敦諭小民文」.

29 주세붕은 교화를 위해 관료시절 지방민의 의전에 관의 전답을 제공하거나(『武陵雜稿』 권1 「義田」), 백운동 서원(1541)은 물론 황해도관찰사 시절(1549) 해주에 수양서원(首陽書院)을 세우기도 했다.

성리학을 공부할 백운동서원이 완성되자, 주세붕은 학전을 마련하여 자본금으로 삼았다. 이때도 주세붕의 주도하에 풍기 사족 황빈이 벼 75석을 보조했다. 주세붕은 서원의 학전을 마련한 후 앞으로 풍기에 부임하는 지방관은 주세붕의 마음을 본받고, 향촌 사족들은 황빈의 의로움을 본받아 서원을 오래도록 유지하기를 당부했다.[30] '관'의 상징인 군수 주세붕과 '민'을 대변하는 사족 황빈이 함께 '향당의 공공화(social)'를 도모했던 것이다.[31]

주세붕은 그동안 조선의 사상사 계보에서 적극적으로 평가받던 인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학자보다 관료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세기 전반 성리학의 확산 과정에서 지방관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32] 주세붕의 향촌 교화는 한 세대 앞의 관료이자 학자인 김안국(1478~1543)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김안국은 경상도관찰사 시절 도내의 교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웠다. 의성 향교를 방문한 그는 속(粟) 80곡(斛)을 내주고 존본취리하여 향유(鄕儒)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33] 주세붕은 김안국의 전례를 본받아 향교와 서원을 건립하고 학전을 마련하여 도학 실천의 밑천으로 삼도록 했다. 향당의 공공화는 관·민,

---

30 『武陵雜稿』 권8 「竹溪志學田錄跋」.

31 백운동서원(이후 소수서원에 이르기까지)을 지나치게 '사립'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허권수(2022), 「신재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건립의 과정과 의의」].

32 대표적인 인물로 김안국·김정국 형제를 꼽을 수 있다. 16세기 중·후반 성리학의 지방 확산은 향촌 사족들의 도학 실천뿐 아니라 지방관으로 부임한 관료들의 역할이 지대했다[송웅섭(2017), 「사재 김정국의 교유관계와 기묘사림 내에서의 위치」, 『동국사학』 63; 김호(2017), 「'權道'의 성리학자 김정국, 『경민편』의 역사적 의의」, 『동국사학』 63]. 가령, 김안국은 1517년 경상도관찰사에 부임하여 행실도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관내의 향교에 성리학을 공부하도록 권하는 시문을 판각하여 걸어 두었다[정재훈(2022), 「김안국의 학문과 사상」, 『대구사학』 149; 김시황(1995), 「모재 김안국선생 權小學詩 연구」, 『동방한문학』 11]. 조선사상사는 퇴·율 중심의 16세기 철학사가 아닌 '당대의 지성사'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지영(2018), 「禮敎의 가늠자: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지리지 '風俗'조의 검토」, 『규장각』 52; 김지영(2022), 「예교의 확산과 풍속 서술의 변화: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 읍지 풍속 기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0].

33 저간의 사정은 의성 사족 申元祿(1516~1576)의 글에 자세하다[『悔堂集』 권2 「上愼齋周先生-乙巳(1546)」].

즉 지방관과 사족의 협응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551년, 주세붕이 상주의 사족들에게 향당의 공공화에 나서도록 권면했을 때, 향안의 서문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지면이었다. 주세붕은 상주를 본관으로 하던 혹 상주에서 태어났든, 재경 관료들이 1551년(명종 6) 서울에서 '향회'를 열었다면서 서문을 쓰게 된 사정을 밝혔다. 당시 참석자는 상락군 김귀영(1520~1593)과 금원군 정응두(1508~1572), 좌승지 정유길(1511~1588), 사인 우상(1507~1560), 좌랑 강사안(姜士安), 좌랑 박유경 등이었다. 주세붕과 김귀영은 모두 상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당시 모임에서 상주목의 좌목 즉 향안을 작성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김귀영이 주세붕에게 좌목의 서문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주세붕은 본향이 상주임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신라의 석우로가 사벌국을 정복한 후 자신에 이르기까지, 상주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여 인구수가 조선 최고이며, 물산 또한 가장 풍부한 곳이라고 자부했다. 땅이 넓고 백성이 많아 전국에서 으뜸이면서도 풍속은 소박하고 순후하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명한 인물로 알려진 이들이 고려시대 인물(11인)을 제외하면, 조선의 경우 단지 최씨 부인 한 사람밖에 없어 괴이하다고 서술했다. 상주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기록에 누락되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주 출신의 재경 관료들 이외에 향촌에는 내로라할 만한 인물이 별로 없다는 인상을 남겨 두었다.

주세붕은 향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재소와 마찬가지로 유향소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군자는 효제를 근본 삼아 한 고을을 교화하고 이를 통해 사해가 본받으며 사해를 통해 고금을 본받도록 하는데 이 모든 시초가 '향촌'[鄕黨]이라는 주장이었다. '지방의 사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면에는 상주의 훌륭한 인물들이 서울(경재소)에 모여 있으므로 유향소의 사족들이 조금 더 분발하라는 함축이 깔려 있었다.[34]

---

34 『武陵雜稿』 권7 「尙州留鄕座目序」.

3.2. 1617년, 향안 서문과 상주 사족의 변화

흥미롭게도 1617년 상주 향안이 중수되면서 주세붕의 서문을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 창석 이준의 발문이었다. 이준은 주세붕의 주장이 상주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주가 고을 규모에 비해 드러난 인재가 적다고 한 주세붕의 주장은 전연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었다.[35] 이준은 사족의 정체성을 '공공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했다.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 관료로 공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지역에 남아 향소나 의국[존애원]에서 활동하거나, 양자는 공공의 차원에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수신제가 후 치국의 방도는 국가의 관료가 되는 것이나, 존애원에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이 주장은 '향당의 공공화'에 나서는 사족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했다.

이준의 글에서 드러난 향촌 사족, 즉 향인(鄕人)의 강조는 16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중앙 관료 중심의 향안 작성이 재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한다. 상주의 사족들은 중앙의 입장에서 지방을 낮추어보거나, 관의 입김이 지나치게 커지는 데 대해 일종의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 바탕에는 향약(鄕約)의 시행을 통해 향당의 공공화를 주도하는 국가의 교화 정책에 수동적으로 끌려 가기보다 자율적으로 공공의 참여를 선도하려는 사족들의 인식변화가 깔려 있었다.

향약을 비롯하여 서원이나 의국 운영은 단순히 국가 주도 혹은 민간(사족) 주도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민·관 공히 향당의 공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상주의 사족들이 자금을 모아 의국을 세웠지만, 그렇게 세워진 존애원은 공국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 16세기 이래 지속된 위기지학의 강조는 '향당의 공공화'에 다름 아니었다. 존애원의 건립과 운영은 국

35 『商山鄕彦錄』 上卷 「跋文」[오세창 외(1986), 『嶺南鄕約資料集成』, 영남대학교출판부] "未知公何所據而乃云耶以一時之謬見而歸一邑於無人 即所未喻且吾於是 而又有所嘆惜焉者 (중략) 鄕人 前弘文館校理 李埈 跋."

가의 주도에 사족들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향촌 사족들이 국가 시책인 공공의 실천에 앞장선 사례였다. 중앙의 공무에 참여하지 않고도, 지방의 공공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향인들은 '사문(斯文)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36]

이러한 취지는 1617년 증수 향안에 붙인 정경세의 서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정경세 역시 '향촌 사족들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향촌 사족의 존재 정당성은 '향음주례를 포함하여 환난상휼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했다.

① 고을에 향안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중략) 영남은 고을이 60여 개 정도 되는데, 각 고을마다 향안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안동과 상주가 가장 성대하면서도 그 선발에 끼기가 아주 어렵다. 어찌하여 성대하면서도 끼기가 어려운가? 이는 세족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② 내가 어려서 부형들의 뒤를 따라 유향소[鄕堂]에 나아갔는데, 벽장의 함에 보관되어 있는 이른바 향안을 꺼내어 공경스레 펼쳐 보니, 마치 바다에 들어가서 용을 보는 것 같아 그 풍부함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중략)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지낸 분들도 오히려 한 고을에 기강을 세워서 백성들의 풍속을 바르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니 나라가 태평스러워지지 않으려고 해도 태평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영남 지방이 나라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며, 나라에서 인재를 취함에 있어서 항상 이곳에서 취하였던 것이다.

---

36 이를 국가나 관의 하수인이 되었다거나, 지방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사족들의 방편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중앙 관료로서 치국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도 '향당의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에 참여할 방법이 열린 것이다[정진영(2016), 「조선시대 재지사족층의 향촌자치에 대한 몇 가지 소견」, 『주민자치』 57; 정진영(2015), 「사족과 농민: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호 의존적 호혜관계」, 『조선시대사학회』 73].

③ 향안이 전해지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장차 국가의 억만년토록 무궁할 왕업과 더불어 그 유구함을 함께한다면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또한 덕을 자신의 몸에 닦아 집안과 나라에서 행하며, 국가의 기둥이 되어 부모의 고향에서 영광이 있게 된다면, 비단 한 고을의 선사(善士)가 되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이 향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다 함께 힘써야 할 바이다.[37]

정경세는 상주 지역의 사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했다. 주세붕의 언급과 달리 상주는 훌륭한 세족과 인재들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는 영남이 국가의 근본이며 상주가 영남의 핵심지역임을 강조했다. 관로에 나가지 않더라도 공공의 실천에 앞장 선 사족들로 인해 지역의 기강이 잡히고 풍속이 순후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경세는 군자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여 나라의 동량이 되거나, 지방에서 덕을 닦아 공공의 실천에 앞장서면 단지 한 고을의 선사(善士)가 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존애원의 설립으로 수신 후 치국의 길이 향촌에서 가능했다. 이는 상주 한 고을의 좋은 선비에 그치지 않고, 맹자의 광거(廣居)에 해당하는 공적 활동이었다. 향촌 사족의 정체성은 '향당 내의 실천'을 통해 재정립되었다.

3.3. 존애원의 존폐와 지속의 어려움

유향소의 사족들은 관의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상주 사족의 공공 실천 의지는 존애원의 창립 멤버였던 이전의 아들 이신규(李身圭, 1600~1681)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1664년 상주 향안의 증수를 주도했던 그는 존애원 설립 멤버 정경세의 제자였다. 이신규는 1633년

37 『우복집』 권15 「尙州鄕案錄序」.

생원시에 합격한 후 상주에 남아 아버지[이전]를 이어 존애원 운영에 관여했으며 도남서원의 여론을 이끌었다. 그는 지위 상승을 향한 평민들의 욕구가 향촌 내 갈등을 증폭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사익이 아닌 공공의 실천에 앞장설 때 비로소 사족의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7세기 중엽 이후 향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사족들은 평민들과 경쟁하고 있었다. 이때 '공공의 실천' 여부가 중요했다. 이신규는 평민들에게 향교의 입학 자격을 허락한 국전(國典)을 비판하면서도 사족의 신분이 위협받고 영남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무언가 사족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신규가 「청금록」에서 강조한 사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지방관을 만난 사족들이 '향촌의 동량'임을 자임했던 근거는 유향소를 주도하거나 의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풍속을 순화하고 공공에 앞장섰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교화의 주체를 자처한 향촌 사족들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도, 세상에 쓰일[世用] 방도를 찾았던 것이다.[38]

이신규 본인 또한 존애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향안 중수가 완료된 1664년, 존애원은 운영상의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의국이야말로 공공의 막중한 장소[公共莫重之地]라는 주장을 담아, 이신규는 의국의 채납 약가를 갚도록 종용하는 편지를 사족들에게 보냈다.

> 의국은 그 유래가 오래나 십수 년 사이에 탕패되어 형체조차 없어졌다. 약재의 출납을 폐하자 곧 약탕 도구도 모두 철거하였으니 당초 의국을 설치한 뜻이 이에 이르러 모두 사라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의국은 공공의 막중한 장소이다. 근처 사람이 한낱 받아먹을 줄만 알고 갚을 생각을 아니하니, 체납이 적체되어 계속 쌓이기를 금년이 이러하고 명년이 또 이러하여 한 사람의 부채가 많은 경우 백여 석에 이르고, 적어도 수십 석을 밑돌지

38 『酉溪集』 권2 「靑衿錄序(1664)」.

않으니 염치없고 도리 없기가 이토록 심하단 말인가.[39]

존애원이 치폐를 거듭한 이유는 제대로 약값을 갚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어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40] 약채(藥債)를 갚지 않는 채무자들은 사족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이었다. 의국의 자본금이 침식되지 않으려면 약재 무역과 제약 및 판매 등을 통한 이익금이 축적되어야 했다. 존애원은 누적된 적자로 자본금이 고갈되었고, 존애원의 도감(都監)은 약채를 갚도록 종용하는 등 운영의 지속을 위해 노력했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다.

누적된 채무 이외에 존애원의 존립에 타격을 준 일은 더 있었다. 1782년 3월 상주의 윤득성은 존애원을 비롯하여 향교와 서원 및 향소의 주요 직임에 서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상주 사족들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변했다. 경상감사 및 형조의 조사를 통해 무고로 밝혀졌고 윤득성은 처벌을 받았지만, 존애원과 향소의 명부 및 서류들은 중앙에 압류되어 사라졌고 상주 사족들의 공공 활동은 위축되고 말았다.[41]

1782년 향전(鄕戰)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다. 이후 여러 차례 상주 사족들은 존애원의 증수를 시도했지만 이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세기 후반에 존애원은 의국의 기능을 상실한 채 거의 시골집[村家]으로 쇠락하고 말았다.[42] 존애원의 자본금은 탕진되어 남아 있는 것은 고작 두어 마지기 논뿐이었고, 약방은 철거된 채 회의 장소로도 사

39 『酉溪集』 권2 「與存愛院諸儒書」.

40 제민루 의국이나 강릉 약국계 공히 약물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칙을 만들어 둔 것은 모두 의국 운영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였다.

41 『일성록』 1782년(정조 6) 3월 8일; 『일성록』 6월 10일.

42 『存愛院新修事蹟』 「存愛院新修事蹟序」, "再去壬寅逢誣告變 (중략) 其後則尙不厘正 簒錄踈 忽看過 衆人事無恒 更若因置 而無端緖 又過幾年 無徵士子 從遊之所 便同村家明善."; 같은 글, "此堂始起於萬曆壬寅 重修於純廟辛未 治葺於當宁丙戌 凡二百八十五年之間 無片言集字者 再去壬寅逢誣告變 諱案及如于文蹟 盡入於京營邑查卞之中."

용하지 못했다. 오직 노인들의 세찬(歲饌)을 마련하는 일에 만족할 뿐이었다.[43]

임란 직후 공공의 실천에 앞장섰던 상주 사족들의 존애원은 공국(公局)의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 채 치폐를 거듭했다. 17세기 중엽 이신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에 이르자 의국의 기능은 소멸되었다.[44] 물론 존애원의 지속을 어렵게 한 배경에는 사설 의원들의 증가와 약령시 등 약재 시장의 활성화가 무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향당의 공공화에 앞장섰던 향촌 사족의 '정체성'이 중요했다. 존애원 설립 초기의 향촌 사족들이 '향촌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실천을 중시했다면, 18세기 이후 향촌의 권력 변동과 관련하여 기왕의 사족들과 새로운 신향(新鄕)들—서자와 성장하는 평민들—은 공익을 위한 연대에 실패하고 있었다.

4. 존애원의 유의 성람

4.1. 삼교회통의 학풍

유형원의 주장대로 지방 의국의 존립은 첫째, 사족들의 공적 책임감, 둘째, 지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의국 자본금의 침식을 막는 일, 그리고 의사의 지속적인 참여로 가능했다. 의생의 양성이 어렵다면 사족들 가운데 누군가 의술에 밝은 자가 의국 운영에 참여해야 했다. 존애원에는 유의 성람

---

43 『存愛院新修事蹟』「完義文」, "本所粵自壬寅經慟以後 財穀蕩竭 餘存只數斗沓庫而已 故撤去藥旁 捲除會集 而猶難挑備封七十歲義爲五十八年久矣."[권태을 외(2007), 『존애원지』, 문창사, p. 320]

44 1886년의 존애원 중수기를 보면, "교목(喬木) 같은 높은 다락과 풍월의 창호가 기와지붕 돌 주초와 함께 기울고 무너지며 약고(藥庫)는 비어 좀먹고 쥐가 드나들어 돈과 곡식이 말라 떨어졌다"고 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存愛院新修事蹟』「存愛院重修記」, "喬木高樓 月戶風牕 傾頹瓦礎 藥壑虛庫 蠹經鼠閱 凋殘錢穀.")

(1556~1620)의 족적이 분명했다.[45]

유의 성람은 상주가 처가였던 인연으로 자주 왕래하였고,[46] 정경세 등 재지 사족들과 교분을 쌓아 존애원 창립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성람의 학풍은 퇴계와 남명으로 대표되는 영남의 학문과는 사뭇 달랐다. 성람은 처음에 남언경(1528~1594)에게 배웠으며, 뒤에 이이와 성혼을 사사했다. 물론 류성룡(1542~1607)의 문인록에도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당파와 상관없이 다양한 학문을 섭렵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언경의 제자라거나 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실을 보면 기학(氣學)에 경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람의 스승 남언경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사상사를 거론할 때, 그는 최초의 양명학자인 동시에 서경덕의 학문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47] 1573년(선조 6) 양주 목사를 시작으로 지평, 장령, 집의를 거쳐 전주 부윤 등 다양한 관력을 경험했던 그는 1593년 공조참의 시절 이황을 비판했다가 탄핵을 받고 사직했다. 남언경은 퇴계 이황과 리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알려진 대로 서경덕은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여 물체가 모이면 사람이 되고 흩어지면 허공으로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퇴계는 이를 불교의 윤회설로 일축하고,[48] 서경덕의 학술이 볼 만한 것이 없는데도 남언경이나 허엽 등이 화담을 장횡거나 진헌장 등에 비유하는 등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49] 퇴계는 서경덕의 기학을 찬양하는 세속을 걱정하고, 서경덕과 그 제자들의 학풍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당

---

45 존애원의 설립을 주도했던 정경세와 이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의 성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로 권태을(2002), 『상주한문학』, 문창사; 김호종(2011), 「존애원의 주치의 청죽 성람 선생에 대한 고찰」, 『제2회 존애원 학술대회발표집』, 상주문화원을 참고할 만하다.

46 성람을 위시한 창녕 성씨의 상주 정착에 대해서는 채광수 외(2016), 「창녕성씨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47 이우진 외(2015), 「이능화의 한국 양명학 연구」, 『陽明學』 42.

48 『퇴계선생문집』 권14 「答南時甫」, "花潭則以爲眞有 其物聚則爲人 物散則在空虛 迭成迭壞 而此物終古不滅 此與一箇大輪迴之說何擇歟."

49 『퇴계선생문집』 권25 「答鄭子中講目」.

박영이 양기(養氣)를 강조하자 이를 문제 삼아 논전을 벌인 적도 있었다.[50]

한편, 1566년 병을 앓던 이황은 남언경의 안부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 돈오와 초월 등 불교의 방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함양과 체찰(體察)은 유가의 종지이지만, '깨달음'[悟]은 유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51] 이처럼 남언경의 학문은 퇴계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성호 이익은 남언경을 퇴계의 문인록에 수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2]

확실히 남언경은 서경덕의 학통을 이어받아 성리학 이외에 양명학이나 선학(禪學)에 두루 밝았다.[53] 선조는 남언경을 의술에 밝고 『참동계』를 상당히 잘 아는 자로 기억했으며,[54] 정경세 역시 그를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했던 북창 정렴과 유사한 술가(術家)로 평가했다. 한마디로 의술이나 도가의 수련법에 밝은 유의로 본 것이다. 요컨대 성람의 스승이었던 남언경은 유·불·선을 넘나들뿐더러 의술과 양생법에 두루 능통한 삼교회통의 학자였다.

이들 기학이나 양생법에 몰두하던 학자들 가운데 인체를 다루는 의술을 공부하는 유의들이 많았다. 17세기 초, 조선 정부는 내의원 어의들의 의술 연마를 위해 유의를 내의원에 초빙하고자 했다. 내의원 수의 허준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남언경의 의술은 어의 허준이나 유의 전유형과 함께 내의원 의원들을 교육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다.[55] 이처럼 남언경을 좇아 공부했던 성람 역시 삼교회통의 학풍은 물론, 도가의 수련법이

---

50 『퇴계선생문집』 권14 「答南時甫」; 송당학파에 대해서는 김학수(2010),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족가문의 학파·정파적 분화와 그 존재양상: 송당문인 김취문 가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8; 김호(2019).

51 『퇴계선생문집』 권14 「答南時甫-彦經○丙辰(1566)」.

52 『星湖全集』 권16 「與權監察-正雄○乙亥(1755)」.

53 장병한(2009), 「퇴계의 화담학에 대한 반론 양상 일고찰」, 『한문학보』 20.

54 『선조실록』 선조 28년(1595) 1월 8일(신사).

55 『광해군일기』 광해군 4년(1612) 10월 7일(정묘).

나 의술에 밝았다. 서경덕→남언경→성람으로 이어지는 기학의 전통은 의국 존애원의 유의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56]

4.2. '무실'(務實)의 실천가

17세기의 관인이자 학자였던 포저 조익(1579~1655)은 젊어서 아버지뻘의 성람을 좇아 교유하면서, 그의 학문과 고매한 인품을 앙모한 바 있다. 성람이 출세에 관심이 없었지만,[57] 은둔을 추구하는 대신 세상에 쓰일 방법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1594년(선조 27) 약포 정탁은 선조의 명으로 지방의 인재들을 추천하면서,[58] 시무를 잘 알며 자애롭고 청렴해서 백성을 다스릴 만한 인재로 성람을 꼽았다. 농사에 밝아 둔전을 운영할 만한 인재라는 칭송이었다.[59] 성람이 경학은 물론 농학과 의학 등 지방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용의 학문을 두루 섭렵했음을 알 수 있다. 성람의 묘갈명을 찬술했던 조익은, 성람이 상당한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장유(1587~1638)와 최명길(1586~1647) 등 젊은 세대와 스스럼없이 학문 논쟁을 즐겼다고 기록했다. 장유와 최명길은 양명학이나 도가 등 다양한 학문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성람의 인자한 성품과 유연한 학풍으로 인해 조익이나 장유 등 후생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는 것이다.[60]사실, 성람은 어려서 당형인 성호(成浩, 1545~1588)로부터 성리학을 배웠다. 성호는 성리학에 밝은 학자로 잠저 시절의 광해군의 사부였다.[61] 성람은 이러한 성호를 좇아 공부하면서 남언

---

56 서경덕 학파의 의국 활동에 대해서는 김호(2018).

57 『浦渚先生集』 권29 「祭成茂朱-浹-文」, "先生資性之端 秉心之平 (중략) 見義之精 於利而淡."

58 『藥圃集』 「약포선생연보」.

59 『藥圃集』 「약포선생연보」, "能知稼穡之務 勸民耕種 卞燥濕之宜 開墾荒廢 作屯田者."

60 『浦渚先生集』 권32 「茂朱縣監成公墓碣銘」 "見公之爲人 慈良平易信實 與人交 誠心惻怛 少無隱僻之行 虛僞之念 而多識先儒言語 蓋其聞見博洽 議論平正 令後生敬而信之."

61 『明齋先生遺稿』 권38 「省庵成公墓碣銘」.

경이나 김근공(金謹恭, 1512~1568)에게도 나아가 공부했다.[62] 남언경은 기학에 몰두했지만, 김근공은 소학을 궁구한 성리학자였다.[63] 이외 성람은 기호(畿湖)의 대학자인 이이와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64] 성람 역시 성리학은 물론 양명학과 선학을 넘나들었고 양생과 의학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회통의 학자였다.

성람의 박학 지향을 두고, 조익은 의학의 이치에 달통하여 수많은 병자를 구제했을뿐더러 그의 정밀한 경지를 세상의 의원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했다.[65] 봉화의 사족 김중청(1566~1629) 역시 청빈한 삶을 추구했던 성람이 의술로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칭송했다.[66] 경세제민의 뜻을 펼치고자 관리가 되는 대신 의술로 생명을 구했으니, 송나라의 범중엄에 비할 만하다는 것이다.[67]

존애원의 유의로 활동하기 전부터 성람은 의술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처가로 이주한 후 상주를 중심으로 공공의 실천에 앞장섰다. 기호계 학자였던 성람이 영남에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람의 진솔한 성격이나 박학무실(博學務實)의 학풍도 중요했지만, 그와 종유했던 정경세, 이준 역시 성람의 학문을 용인할 만한 융통성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68] 정경세는 퇴·율의 사단칠정 논쟁을 놓고 율곡의 학설을 지지하

---

62 김근공의 본관은 강릉, 호는 척암이다. 그는 서자 출신으로 화담 서경덕과 서자 출신인 이중호 등에게 수학한 후 동몽훈도를 지냈다. 『소학』을 중시하여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重峯先生文集』 권5 「辨師誣兼論學政疏」 참조).

63 『명종실록』 명종 9년(1554) 11월 26일(계해). 이중호의 졸기 참조.

64 성람 역시 성수침-성혼으로 이어지는 무실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황의동(2013), 「청송 성수침의 도학정신과 무실학풍」 『한국사상과 문화』 69].

65 『浦渚先生集』 권32 「茂朱縣監成公墓碣銘」.

66 『苟全先生文集』 권3 「輓成士悅」, "夏山韻姓商山老 翠麓城西白屋居 歸去當年彭澤比 淸貧半世櫟陽如 醫邦手屈醫人妙 種杏林成種德餘 風味書紳吾已久 題哀不耐淚盈裾."

67 『浦渚先生集』 권1 「哭成茂朱-浹」, "平生濟人志 反托醫方施 所活幾千人 范老誠一規 道尊人莫知 但知深於醫."

68 김학수(2019), 「정경세·이준의 穌齋觀: 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

거나,[69] 서인이었던 동춘당 송준길을 사위로 들일만큼 당파를 넘어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의술에 뛰어난 성람을 기호 학인이라고 해서 배격했다면 애초에 존애원의 운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70]

존애원을 함께 건립한 정경세는 성람의 인품을 흠모하며 40년을 한결같은 우정으로 지냈다고 추억하곤 했다.[71] 성람과 함께 성리학을 토론하고, 『참동계』를 공부하거나 각종 비결을 열람했다는 것이다.[72] 존애원 유의로 활동하던 성람은 1606년 무주 현감에 임명되어 상주를 떠났다.[73] 선조 말년에 인후통을 앓는 선조의 치료를 위해 잠시 의약동참으로 내의원에 입시하기도 했다. 맥법에 밝다고 알려진 류계룡[鍼醫]과 함께 성람이 선발되었는데,[74] 이후 1608년 선조의 시측에 참여했다가, 선조가 사망하자 대북파의 독살을 의심한 일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75]

상주 시절 성람은 관직을 접고 의국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의술을 베풀

을 중심으로」, 『영남학』 71.

69 『同春堂集』 속집 권6 「연보」 송준길이 30세 때의 일이다. 그는 외구(外舅) 정경세에게 "퇴계와 율곡의 이기설이 같지 않으니, 누구의 설을 따라야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정경세는 "율곡의 설이 옳은 것 같다. 몸소 체험한 바를 말한다면 가묘(家廟)에 들어갈 때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은 경(敬)의 발로이지만 그 숙연한 것은 기이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70 성람의 아들 성여춘(成如橚, 1583~1662)은 『천기대요』(天紀大要)라는 택일서를 저술한 바 있다. 그는 관상과 명과학(命課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것으로 유명한데, 장인이 어의(御醫)였던 인천 채씨 채유종이었다. 상주 출신의 채유종은 내의원 침의로 그의 아들 채득기 역시 숭정처사로 이름을 날렸을 뿐 아니라 어의로 활약했다[昌寧成氏贊成公派宗中世譜編纂會(2003), 『昌寧成氏贊成公派世譜』 권1 「知事公派」].

71 『우복집』 권16 「祭成士悅文-庚申(1620)」, "余與子知 今四十春 (중략) 想君風神 思君話言 (중략) 曷其可諼."

72 『우복집』 권2 「挽成士悅-濫」.

73 『선조실록』 선조 39년(1606) 10월 4일(기해).

74 『선조실록』 선조 37년(1604) 7월 2일(신해).

75 성람의 집안은 소북계로 유영경과 연결되어 있었고, 때문에 선조 사후 대북파(정인홍)의 공격을 받았다. 선조가 승하하자 중독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성람이 "임금의 몸이 이상할 정도로 검푸르니 소문이 헛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연려실기술』 권23 「仁祖朝故事本末」). 성람은 대북파의 독살을 의심했다가 고초를 겪은 것이다.

어 범중엄의 말 그대로 제세(濟世)의 실천을 펼쳤다. 존애원은 정경세, 이준 등 상주 지역 재지 사족들 그리고 성람처럼 상주에 이거해 온 사족들이 함께 만든 '공공의 실천장'이었다. 이처럼 지방의 의국은 책임 있는 사족들이 관리자[都有司]가 되거나 유의로 활동할 때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물론 채무자들이 늘어 재정이 고갈되고 공공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족의 의지가 소멸할 경우, 언제나 폐지의 위기에 직면하곤 했다. 존폐를 거듭한 존애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약전(藥田) 등 재정을 지원하고 사족들의 자율에 의국의 운영을 맡겼지만, 18세기 후반 존애원은 더 이상 의국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파를 넘어 연대하거나 신분을 넘어 현능한 자에게 사무를 맡기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76]

5. 맺음말

본고에서 필자는 16~17세기 조선에서 나타난 '향당의 공공화' 현상에 주목하고, 해당 변화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공공 실천의 현장이었던 존애원의 치폐를 살펴보았다. 잘 알려진 대로, 16세기 이래 지속되었던 소학 실천 운동을 비롯한 도학(道學) 추구는 수신제가 이후 치국의 실천이, 중앙의 관료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 '향촌 내 공공의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었다. 유향품관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초시(初試) 합격자들은 향촌에 남아 공공의 활동에 종사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향소 참여나 서원 및 향교에서의 활동은 '사문(斯文) 의식의 확장과 지식인의 정체성'에 대한 느리지만 뚜렷한 역사적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

76 『일성록』 1782년 6월 10일. 당시 윤득성의 무고는 서자들의 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소 직임을 금지하던 상주 사족들의 풍속과 관련이 있었다. 서얼 허통 정책을 펼쳤던 정조는 상주의 사족들을 처벌하는 대신 '대계'(大契)로 화합하도록 명령했다[권태을 외(2007), p. 194].

본고에서 논의되고 있는 향당의 공공화, 즉 '공공성'은 관이나 국가 혹은 사(private)의 대척으로서의 공(public)이라기보다 '사회(social)의 구현' 즉 사회적인 것의 발견[구축]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전통적인 호혜 조직인 '계'(契)를 공적인 '약'(約)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 또한 이러한 향당의 공공화와 관련된 주요한 변화였다. 향촌의 공공화는 사적 이익의 각축을 극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16~17세기 조선의 지방관들과 향촌 사족들이 함께 추구했던 향당의 공공화 과정을 두고 단지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한 향촌 통제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존애원은 '향당의 공공화'라는 17세기 초 역사적 변화의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기왕의 연구들은 존애원의 정체성을 상주 사족들의 '사설이나 사립' 병원으로 규정해 왔다. 일견 국가나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국 건립에 나선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존애원을 공국으로 표현했던 읍지의 편찬자들이나 존애원 운용에 참여했던 상주 사족들의 공공의 실천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17세기 후반 조선의 전면적 개혁을 주창했던 반계 유형원은 지방 공공의료의 확산을 위해 관·민의 협동으로 한 도에 서너 개 정도의 의국을 설치하고, 이를 사족들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도록 했다. 애초에 의국이 국립이냐 사립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향당의 공공화'라는 실천에 관·민의 구별은 없었다. 성리학의 위기지학은 사익이 아닌 공공, 즉 향당(social)을 위한 실천을 요구했고, 사족들은 지방관을 돕는 보조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의국의 공공성에 주목했다. 향촌 사족들 가운데 일부는 국가의 지방 의국 운영에 참여했으며, 일부는 직접 의국을 건립하기도 했다.[77] 물론, 유의로 활동하기도 했다. 범중엄의 주장대로 의술은 경세제민의 주요한 방도였기 때문이다.

---

77 김호(2023).

기왕의 연구는 16~17세기의 조선 향촌을 설명하면서, 국가 주도 혹은 사족 중심의 지배라는 이분법을 줄곧 사용했다. 사족 주도의 지배체제라는 표현은 지방관 중심의 행정에서 사족들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자치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거나 반대로 비판하는 연구사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지방 행정에서 지방관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한 번도 부정되거나 가볍게 취급된 적이 없었다. 나아가 성리학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향당의 공공화' 즉 사족의 자발적인 공공 실천을 격려하는 것이었기에, 지방관과 사족을 관과 민으로 대립시키는 구도는 역사적 진실과 사뭇 다르다.

필자는 향촌 사족의 활동을 관에 대립시키거나 혹은 서원과 향약 등의 교육 측면에 국한시키는 대신 관·민의 협응이라는 관점을 도입하고 의국의 운영이라는 새로운 실천을 발굴함으로써, 16~17세기 '공공(social)의 구축'이 가진 역사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당시 국가나 관의 '공공'이 아닌 사회로서의 '공공'이 구축되면서, 점점 더 많은 향촌의 사족들 그리고 평민들이 공공의 장에 참여하고자 했다. 사문의 확대와 책임을 다하려는 지식인들의 의지가 중요했다. '향당의 공공'을 추구했던 이들의 의지는 의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 호혜의 토대를 만들려 했던 이들의 실천이야말로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오늘날, 한 번 더 곱씹어 볼 주요한 역사적 실천이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자료

『苟全先生文集』
『德村集』
『同春堂集』
『明齋先生遺稿』

『武陵雜稿』
『磻溪隨錄』
『商山誌』
『星湖全集』
『藥圃集』
『燃藜室記述』
『愚伏集』
『酉溪集』
『一默齋集』
『日省錄』
『重峯先生文集』
『蒼石集』
『淸狂子集』
『退溪集』
『浦渚先生集』
『悔堂集』

논저

권태을(2005), 『(조선최초사설의료원) 존애원』, 문창사.
권태을(2002), 『상주한문학』, 문창사.
권태을(2000), 「상주 존애원 관련 시 소고」, 『상주문화연구』 10.
권헌익 외(2016),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푸른길.
김도완(2018), 「상주 洛社契의 존애원 설립과 운영」,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자(2018), 「임진왜란 이후 柳成龍과 그의 문인들의 의료 활동과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70.
김성수(2021), 「상주 존애원과 지방 의원의 운영」, 『제9회 상주박물관학술대회자료집』.
김시황(1995), 「모재 김안국선생 權小學詩 연구」, 『동방한문학』 1.
김지영(2022), 「예교의 확산과 풍속 서술의 변화: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 읍지 풍속 기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0.
김지영(2018), 「禮敎의 가늠자: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지리지 '風俗'조의 검토」, 『규장각』 52.
김학수(2019), 「정경세·이준의 穌齋觀: 정경세의 비판적 흡수론과 이준의 계승적 변호론을 중심으로」, 『영남학』 71.
김형수(2016), 「임란직후 상주 지역질서의 재편과 존애원」, 『국학연구』 30.
김호(2023), 「환난상휼의 실천, 16~17세기 향촌 사족들의 지방 의국 운용」, 『역사와현실』 127.
김호(2022), 「조선후기 경화사족의 慈善 醫局 구상: 홍길주의 用壽院을 중심으로」, 『서울

학연구』 88.
김호(2019),「16세기 지방의 의서 편찬과 환난상휼의 실천지」,『조선시대사학보』 89.
김호(2018),「16~17세기 조선의 지방 의국 운영: 경북 영주의 제민루를 중심으로」,『국학연구』 37.
김호(2017),「'權道'의 성리학자 김정국,『경민편』의 역사적 의의」,『동국사학』 63.
김호종(2011),「존애원의 주치의 청죽 성람 선생에 대한 고찰」,『제2회 존애원 학술대회 발표집』.
볼, 피터(2010), 김영민 역,『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샹바오(2022), 김유익 역,『주변의 상실: 방법으로서의 자기』, 글항아리.
송웅섭(2017),「사재 김정국의 교유관계와 기묘사림 내에서의 위치」,『동국사학』 63.
신동원(2006),「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역사비평』 75.
오세창 외(1986),『嶺南鄕約資料集成』, 영남대학교출판부.
우인수(2021),「존애원의 설립과 변화」,『제9회 상주박물관학술대회자료집』, 상주문화원.
우인수(2011),「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 기능」,『대구사학』 104.
이규대(1988),「조선후기 약국계의 일고찰」,『사학논총』, 우인김용덕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이석희(2015),「최근 30년 북미 중국학계의 향촌사회사 연구동향」,『역사와 현실』 97.
이우진 외(2015),「이능화의 한국 양명학 연구」,『陽明學』 42.
장병한(2009),「퇴계의 화담학에 대한 반론 양상 일고찰」,『한문학보』 20.
정순우(2013),『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정재훈(2022),「김안국의 학문과 사상」,『대구사학』 149.
정진영(2016),「조선시대 재지사족층의 향촌자치에 대한 몇 가지 소견」,『주민자치』 57.
정진영(2015),「사족과 농민: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호 의존적 호혜관계」,『조선시대사학회』 73.
정진영(1998),『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채광수 외(2016),「창녕성씨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조선시대사학보』 79.
최은주(2016),「월간 이전·창석 이준 형제의 전쟁체험과 애민정신, 그리고 존애원」,『국학연구』 30.
한기문(2000),「조선후기 상주 존애원 설치의 배경과 의의」,『상주문화연구』, 10.
허권수(2022),「신재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건립의 과정과 의의」,『연민학지』 38.
황의동(2013),「청송 성수침의 도학정신과 무실학풍」,『한국사상과 문화』 69.
Lee, Sukhee (2014), *Negotiated Power: The State, Elites, and Local Governance in Twelfth to Fourteenth-Century China,*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원고 접수일: 2023년 4월 25일, 심사완료일: 2023년 5월 8일, 게재 확정일: 2023년 5월 10일

ABSTRACT

“Socialization of Local”, a Public Hospital, Jonaewon Established by Sangju’s Literati and Literati-physician Song-ram’s Activity

Kim, Ho*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ocialization of Local” that emerged in the 16th-17th centuries in Joseon Korea. I examine the specific activities of the literati who led public practices through Jonaewon, a public hospital, in the early 17th century. Previous studies have defined Jonaewon’s identity as a “private hospital”. However, this evaluation does not properly assess the “social practices” of the literati. The moral orientation of Neo-Confucian scholars created the idea that the management of the state was not something that could be done by central bureaucrats alone. Rather, it could also be achieved by promoting “social practice in rural communities”. This article criticizes the research trend that puts the local literati and state in a confrontational position, or limits their role to education at Soewon. Instead, I seek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iterati a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By exploring new cases of activities by the literati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public hospitals, I aim to actively evaluate the historical phenomenon and significance of the “discovery of

* HK Professor,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ocial" in the 16th–17th centuries of the Joseon Dynasty.

Keywords Public Hospital, Jonaewon, Sangju's Literati, Social, Ju-Sebung, Jeong-Gyeongse, Song-ram, Yi-jun